

# 한살림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3-R-04

## 한살림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정호 | 모심과살림연구소 파견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



# 목 차

## 1. 연구 배경과 목적 \_ 1

## 2. 한살림 생산조직으로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1) 농민의 새로운 생산과 생활 협동을 위한 실천의 장 \_ 2
- 2) 농촌/농민문제 해결의 출발점 \_ 2

## 3.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실천

- 1) 마을공동체 정착과 유기농업 기준 정립 \_ 4
- 2) 주체적인 생산조직 건설과 지역순환농업 \_ 7
- 3) 조직특위, 생산조직 활동단위로 시군조직/권역조직 정착 모색 \_ 9

## 4.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현황과 과제 \_ 11

- 1) 생산자 일반현황 \_ 12
- 2) 만족도 \_ 15
- 3) 공동체 지속성 \_ 16
- 4) 퇴비 생산 \_ 18
- 5) 지역사회 연대 \_ 19

## 5.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_ 20

- 1) 생산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 \_ 22
- 2) 각종 운영지침 \_ 23
- 3) 도농교류 강화 \_ 25
- 4) 지속적인 생산공동체 지도, 지원 기능 강화 필요 \_ 26

## 부록1. 2013년 공동체현황조사 결과 \_ 29

## 부록2. 2010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비전수립워크숍 결과 \_ 41

## 참고자료 \_ 43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현재 생산자연합회를 둘러싼 한살림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한살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
- 생산자연합회 내부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생산자들의 조직 방향으로 지역순환농업을 선택하며 10여 년을 집중하여 활동하면서 소규모 공동체나 권역조직의 발전전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생산자연합회의 조직방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 지역순환농업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조직적으로 논의되어 공동체 스스로가 현재의 단계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 설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 한살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생산조직의 활동 이슈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권역조직의 발전 전망, 소규모 공동체의 발전경로 설정을 위한 논의를 촉발한다.
- 급변하는 한국 농업 상황에서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기후변화, 식량주권, 대기업 자본의 농업진출(식물공장 문제, 종자 문제, GMO문제, 대형유통 및 유기 가공원료 문제 등), 유기농업의 관행화 경향 등
- 지역순환농업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방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 과제를 제시한다.

## 2. 한살림 생산조직으로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1) 농민의 새로운 생산과 생활 협동을 위한 실천의 장

1982년 원주캠프에서 발표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일명 원주선언)에 보면 생명운동에 있어서 농(農)의 의미는 온 ‘우주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종자의 자기 생명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노동 과정을 통해 자기 보존, 확장, 성장케 하고 인간 동료와 협동함으로써 사회적인 협동의 생존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박재일 전 회장을 비롯한 가톨릭농민회의 활동가들은 1980년대 초에 생명농업과 생활공동체운동에 대한 전망 좌담회를 통해 ‘농민의 삶이 땅을 기반으로 하기에 협동적 생산 활동으로 서로간의 깊은 인간적 연대감과 일상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관계의 조직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강조하였다. 즉 생활공동체에 기반하여 농업생산의 결과물을 공동판매 과정을 통해 조직화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여 마을의 신뢰를 획득하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해가고자 했다.<sup>1)</sup>

그리고 1990년 한살림 무크지에 실린 박재일, 김영원, 이순로의 간담회에서는 농업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마음과 시각의 근원적인 변화와 각성을 통해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협동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을 한살림운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그 실천방법으로 유기농업과 도농직거래를 통한 연대와 협동활동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2)</sup>

### 2) 농촌/농민문제 해결의 출발점

---

1) 좌담 〈생활공동체 그 평가와 전망〉, 공동체문화 3집, 1986

2) 『한살림』, 한살림모임, 1990.

김영원 전 한살림 생산자협의회 회장은 1991년에 있는 생산자연수회에서 농업농촌 위기의 대안이자 농민 문제의 해결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명과 생활을 서로 나누는 탈자본적인 공생적 관계의 회복뿐이라고 역설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농사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순환되는 본래의 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세상농사이며, 두레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배추밭에서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의 얼굴이 보이는 농사, 거미줄, 매뚜기, 피라미가 뛰노는 논·밭,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기농업의 모습이라고 강의하였다. 즉 유기농산물에 담긴 협동, 공생의 의미처럼 삶도 협동적으로 하는 농민들이 모인 마을공동체를 생산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다.<sup>3)</sup>

또 한살림연합의 이상국 대표는 농촌에서의 한살림운동은 농촌에서 한살림이 지향하는 농업양식,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생산자 자신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운동이 한살림운동이라고 하였다.<sup>4)</sup>

결론적으로 농업살림을 실천하는 생산공동체는 농촌지역의 한살림 기초조직으로서 도시소비자와의 교류 및 협동의 토대임은 물론,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생산활동과 함께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해 그 가치를 지역사회 안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

3) 김영원 “농업, 농촌 위기의 대안으로서 유기농업 공동체운동”. 1991 생산자연수회 강연

4) 이상국, 생산자 대상 강의 2000년경

### 3.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실천

#### 1) 마을공동체 정착과 유기농업 기준 정립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써 농적(農的) 문명을 토대로 한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으로의 전환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목표로 한 한살림운동은 농촌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 한살림 최초 산지인 음성 흙공동체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생산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산자들의 노력은 1988년 생산자협의회 창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농업살림의 기본조직 단위로서의 생산공동체에 대한 조직적 모습을 갖기 시작한다. 1991년 생산자연수회 자료집에 보면 협의회 회칙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로 생산공동체의 확산을 회원 의무사항으로 마을공동체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 활동계획으로 생산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생활수칙 실천, 마을 문제 해결, 농업 생산기반 파괴 정책에 대한 시정 활동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 제기동에서 음성의 무농약 쌀과 공근의 유정란으로 도농직거래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한살림의 초창기 생산자들은 생산(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농업살림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생산(마을)공동체는 정기적인 율례회의, 생산 및 출하관련 점검, 한살림정신이나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학습, 소비자들과의 교류 등을 활동내용으로 실천하였다. 초창기 생산자들은 이러한 공동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생산과 관련된 신뢰관계의 소중함을 학습하고 훈련받았다. 즉 생산공동체 활동이 생산자들의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던 것이다.<sup>5)</sup>

---

5) 1989년 개정된 생산자협의회 회칙에 제3조 목적에 올바른 생산 및 생활나눔, 생산공동체 확산, 소비자공동체와의 연대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6조 회원의 의무 조항 2항에 마을생산자공동체를 결성해야 함을 두고 있다. 1991년도 활동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생활변화 부문에 회원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정기회의, 공부, 행사), 생활수칙, 마을문제 공동해결, 농업생산기반 파괴정책 시정활동 등을 수립하였다. 교육자료로 한살림 유기농산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채소는 유기재배, 곡물은 무농약재배를 인정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별가격제를 적용하고, 차액은 생산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논의하였다.(1991년 생산자연수회 자료집)

그러나 생산자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 활동은 1990년 초반에 있었던 유행 상품질문제로 야기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의 위기로 생산자협의회가 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산자/생산조직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대책노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생산자들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자율, 자치적인 활동의 좌절을 겪은 생산자들은 이후 개인 또는 개별공동체 단위의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생산, 공급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농촌에서의 한살림 활동은 사단법인한살림(한살림서울의 전신)의 물류부나 생산부와의 물품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활동에 머물렀는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소비조직의 성장으로 개별적 활동에서 벗어나 생산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 생활권역(5개 권역) 중심의 부정기적인 모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표 모임과 품목 모임을 구성하고 그 대표들이 모이는 사단법인한살림 산하 생산자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활동에 대한 필요에서 시작된 조직이라기보다는 한살림 전체조직의 필요(현안에 대한 생산자적 입장 수렴 등)에 의해 시작하게 된 탓에 생산자위원회는 수동적 활동에 머물렀으며, 1998년에 가서야 정례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다.<sup>6)</sup> 이후 유기농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생산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생산현장의 당면 과제에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sup>7)</sup>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한살림적인 농업방식, 생산방식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것이다. 1998년 사단법인한살림 이사회의 제안으로 생산자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물품정책, 생산방식 등을 검토하고 그 해 겨울 생산자 전체연수를 통해 조정, 조율해나갔다.<sup>8)</sup> 특히 한살림의 농업정책을 정리한 것 중 제 7항에서는 우리나라 농

---

6) 1996년 봄부터는 개별적으로 존재한 생산공동체를 생활권역별(5개 권역)로 조직화 시작 하였고, 생산자 활동의 자율적 운영기구를 사단법인한살림 산하에 생산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생산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모으지 못한 한계로 수동적 운영에 머물렀다. 1998년 전국조직으로의 생산자위원회 정례회를 결정하였고, 지역·품목별 대표성을 가진 생산자들로 구성하였다.(지역모임(20개), 작목모임(9개모임) 정례회 추진, 여성생산자 모임 개최)(한살림생산자조직의 연혁, 배영태, 농업살림연구모임 회의자료, 2013)

7) 1999년 생산자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유기농발전기금 운영에 관해 논의하며 이 기금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공동체 운영의 체계를 잡아나간다.(년 6회 이상 회의, 회의록 제출) 공근, 당진, 아산, 상주, 울진, 단양 등 6개 정도가 공동체 단위 정기적 회의 진행하였으며, 그 외 13개 지역에서 비정기적 공동체 회의를 진행하였다.(1999년도 제2차 생산자위원회 회의자료)

업의 한계인 단작화, 전업농화, 기계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복합형 농업을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1999년 환경보존형 지역농업 실현지로 아산을 지정하여 추진하였다. 1999년도 아산의 유기농마을 선포, 2001년 홍천 명동리의 무농약마을 선포 등을 통해 한살림 농업정책의 중심과제인 시/군지역 단위의 지역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지역농업의 실천 양상은 전체 조직의 논의를 통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한살림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준비단계에 맞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 지도자의 일방적 추진으로 2011년 대형사고가 터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00년 웰빙 바람 이후 물품 공급 중심의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급속하게 성장하는 생산 현장의 움직임에 대해 밀착해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해서 자립, 자치, 자율적인 생산공동체로 성장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공동체와 생산자위원회, 생산자모임 창립을 축으로 하는 자립적 생산자조직의 운영체계 형성<sup>9)</sup>과 계획생산, 책임소비와 유기농산물의 기준정립, 품질관리체계 마련 그리고 생산공동체의 활동방향으로 지역농업 실천을 위한 준비단계<sup>10)</sup>라고 볼 수 있다.

8) 1998년 생산자위원회에서 한살림 농업·물품정책, 생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시기 생산자 연수회는 농한기인 12월경에 2박3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살림 생산자로서 가져야 할 관점과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고, 생산자들 간의 사례발표를 통한 기술교류, 유기농업 현황 및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해설, 한살림 기술교육 등으로 진행되었고, 주요하게는 내년도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취합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유기농업 기준을 찾아가는 단계였다.(한살림생산자조직의 연혁, 배경, 농업살림연구모임 회의 자료, 2013)

9) 2003년 2월 농촌지역에서의 한살림운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전국조직으로 한 살림생산자모임 창립, 주요활동 방향으로, 생산자위원의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 마련(가입절차 확립, 생산자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강화,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농한기 심화프로그램 마련, 단계적 회원교육 및 핵심일꾼 양성 교육 마련 등)(2003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창립자료집)

10) 2002년 지역별 공동체모임이 정착되며 자주적 생산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회원관리 강화, 교육 및 소통강화를 통해 한살림생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며, '지역', '지역농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며 생산자들의 활동목표가 명확히 정립됨(2002년 생산부문 활동평가서 참조)

## 2) 주체적인 생산조직 건설(마을공동체-광역단위(도)-전국)과 지역순환농업

농촌지역에서의 한살림운동의 구심축인 생산자모임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4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웰빙 바람에 맞물려 생산 정책 관련 부분에서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지의 단지화와 원물 생산지를 우선하는 가공배치를 통해 생산공동체의 집중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sup>11)</sup> 이를 통해 물품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산지의 재배치(특히 쌀, 채소류) 및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집중화를 통해 아산, 홍천, 청주 등의 산지가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 한 축에서는 소규모 생산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이를 추진할 핵심일꾼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생산공동체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토대로 농업살림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sup>12)</sup> 이 시기의 생산자들은 생산조직의 조직운영체계(공동체-권역(도)생산자모임-전국모임) 구축, 한살림 기초생산조직인 마을공동체의 활동방향 모색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핵심일꾼 연수회를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 세 차례 개최하는 등 농촌살림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 생산공동체의 준비부족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조직적인 지원방안 등이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지역 생산공동체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산 정도에 머무는 모습을 한계로 보여주었다.<sup>13)</sup> 또 2007년에 도입한 지역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살림기금 운영은 지역사무국의 지원을 받은 공동체들의 자체적인 발전 전망을 추진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생산시설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sup>14)</sup>

11) 2000년 들어서면서 생산부분을 담당하는 물류사업부의 목표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지 단지화 및 가공 배치 등을 통해 집중화(아산, 홍천, 공근, 과산, 청주 등) 추진 지역 내 경축순환농업 추진 등 공동체의 활동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농촌에서의 한살림 활동 생활화 및 소비자와의 교류 확대 등을 설정하고 추진 함(2000년 물류사업부 활동평가서 참조)

12) 2004년에는 생산자모임의 기본적인 운영체계(공동체-도별조직(도별 공동체 대표·총무회의)-전국운영회의) 구축과 마을조사, 산지 재배치, 소규모 가공사업 배치 등을 통해 한살림 지역(마을) 만들기 추진 공동체 월례모임 강화를 통한 일상 학습과 신규회원 교육 강화, 핵심일꾼 발굴·훈련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연수 파견 등을 추진(2004년 제2차 총회자료집 참조)

13) 2005년 제3차정기총회자료집 2004년 활동보고 참조

14) 2008년 제6차정기총회자료집 2007년 부문별 활동실적 및 평가 참조, 이후 생산자연합회는 매년 약 1,2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살림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2009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한살림의 조직적인 역량을 모아 농촌지역의 한살림 지역농업의 실천모델로 지원한 아산, 괴산, 홍천지역의 지역농업 실천활동은 친환경농업운동진영 안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선진지 견학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산 지역의 ‘자원순환형 지역농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결합뿐 아니라 가공사업의 배치를 통해 지역농업 실천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한살림의 조직적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2004년 핵심일꾼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핵심일꾼 워크숍, 중점마을조사사업, 농업살림기금 공모사업 등)은 단편적 시도에 머물고 만다. 생산공동체의 자치,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준비부족, 한살림 조직 전체적인 종합적인 발전전략이나 현장밀착형 지원단위의 부재로 인해 일부공동체(특히 호남지역이나 괴산지역)들의 활성화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2005년, 2006년의 물품적체 상황과 그간의 신규 생산자 급증에 따른 물품사고 증가 등에 따른 대책(한살림 물품인증제도, 생산자주체적인 생산, 출하관리체계 논의) 마련 등으로 인해 생산공동체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 등은 미루어지게 된다. 이후 그 대책은 지역별(도) 사무국 간사제 도입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방안 마련과 권역조직 운영체계 강화 등으로 진행되지만, 2006년 이후 한살림 물품인증 시스템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 생산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직운영으로 인해 소규모 생산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추진은 도별사무국의 과제가 된다.<sup>15)</sup>

생산공동체의 자립과 자율적인 공동체 운영체계를 강화할 도연합회 산하 사무국 인력 배치는 생산공동체들의 활동내용을 지역농업의 실천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 구조였다. 또 생산자들이 처한 상황과 한살림 전체조직, 생산자조직의 활동 내용들을 생산현장까지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과 공동체 활동의 내용적인 통합성을 담보해 나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06년도 생산공동체 지원단위인 도별 사무국을 설치하며 본격화된 도연합회 중심의 운영 구조는 생산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어내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운영 3년 여를 경과하면서 도 사무국

---

문화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자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금액을 감당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15) 2006년 제4차정기총회자료집 2005년 활동보고 참조

장 중심의 생산조직 운영이라는 한계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운영구조를 위한 생산조직 법인화를 통한 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sup>16)</sup>

그러나 2010년 한살림 전체조직 조직개편 과정과 맞물리면서 독립적 법인화의 방안이 아닌 한살림운동의 통합조직인 한살림연합 안에서의 생산자활동 강화와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지도자 양성을 위한 생활권역조직화의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권역 단위로의 조직개편은 2009년도 말부터 진행되어왔던 생산자조직 독립적인 법인화 논의 과정과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집행부 중심의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인해 생산 현장의 힘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조직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산청과 홍천의 연이어 물품사고에 대한 조직수습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3) 조직특위, 생산조직 활동단위로 시군조직/권역조직 정착 모색

2003년 전국 단위의 생산자조직으로서의 생산자모임 결성은 그 이전 산발적인 활동에 머물러있던 생산자들의 농업살림 활동을 지역농업 실천을 중심으로 모아내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물품적체 상황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급증으로 한살림 물품의 차별성을 위한 한살림 물품 인증제도 정립, 생산·출하관리체계 정립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이 진행되면서 한살림 내부 활동(물품중심)에 머물게 된다.<sup>17)</sup>

2011년 산청, 홍천에서 연이어 물품혼입사고가 발생한다. 산청이나 홍천 지역의 활동은 2000년대 친환경농산물의 확산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대표 사례로 기초생산 공동체의 활동 및 생산자의 참여보다는 지역현장 지도자 중심의 일방적 조직운영이 갖는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생산조직 차원의 점검 및 지도 기능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16) 2009년 12월 공동체대표자연수회자료집, 생산자연합회 조직강화에 대하여 참조

17) 2008년 2월 제6차정기총회자료집, 2007년 활동평가 참조

통해 그동안 한살림에서 지향해왔던 농촌살림의 모습인 기초생산공동체의 자립, 자치, 자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생산자들은 산청과 흥천의 사건이 개별 지역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2003년 생산자모임이 만들어진 이후 친환경농산물의 확산에 따라 생산조직 및 한살림조직 운영이 물품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이며, 생산자들 스스로가 농촌지역에서의 한살림운동보다는 물품생산 중심의 관점에 매몰되어 활동해온 결과라는 반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생산조직 수습과정에서 젊은 현장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개편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조직혁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2011년 11월부터 조직특위는 4개월의 활동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조직운영방안을 담은 특위보고와 2012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운영위원회와 2012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주된 내용은 생산자 사무처장의 상근과 전국운영위원회 강화를 통한 생산자 현장성의 구축 및 현장소통 강화, 지역생산조직들의 자율, 자치적인 활동방안, 생산관리의 강화방안, 후계 핵심그룹 형성을 위한 생산자활동가 제도 등이다.<sup>18)</sup> 2011년 시/군 중심의 권역단위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홀함이 지적되었던 생산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전국운영위원회 확대 강화, 생산자활동가 제도 도입, 지역조직의 사무국 실무자의 충원 등을 통해 소통구조와 집행실무구조 강화로 생산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생산자연합회 회장단 교체 및 강화, 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생산조직의 활동성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인 활동방향 설정과 실천을 위한 단위 그리고 생산조직 내부만이 아닌 한살림 전체조직, 나아가 사회적으로 활동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

18) 2012년 2월 제10차정기총회자료집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참조

#### 4.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현황과 과제<sup>19)</sup>

농촌에서의 한살림활동 방향을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전환과 지역에서의 확산으로 정리하고 지역농업을 실천과제로 삼아 다양한 시도를 해온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6개 시/군연합회와 11개 권역협의회 산하에 90여 개의 공동체, 2천 명의 생산자 회원을 둔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0년 생산자연합회는 핵심일꾼들과 공동체 중심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생산자연합회의 사명문과 실행목표, 실행과제를 정리하였다.<sup>20)</sup> 실행목표와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올바른 유기농업의 실천을 위한 자금퇴비의 중요성과 유기농업 기술 계발 등을 통한 진정한 생산방식의 전환을 그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생활양식을 바꾸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진정성을 담아내는 도시 소비자 조합원들과의 도농교류 모색을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안정적 생산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 생산자 인력 양성, 생산조직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생산자연합회에서는 2천 명의 생산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5개 지역 생산자들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19)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 결과, 2013년 공동체현황조사 참조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생산자연합회에서 생산현장에 밀착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전국 지역조직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5개지역(괴산, 청주청원, 부여, 충북북부, 제주지역)의 생산자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팀에 용역을 주어 1:1면담조사를 통해 생산자 개인의 영농현황, 소득 및 부채현황, 소득 및 가격에 대한 의식, 한살림 안에서의 향 후 전망, 지역조직 활동의 분야에 걸쳐 약 200여 문항의 생산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지역 510명의 생산자 중 475명에 대하여 면담조사가 이루어져서 응답률 93%이다.

2013년 공동체현황조사는 본 연구보고서의 생산공동체 관련 기본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역사무국장을 통해 생산공동체의 대표, 총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공동체 단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 시/군 연합회 중 4개 연합회와 56개 공동체 중 25개 공동체가 응답을 하였다.(응답률 약 50%) 이 조사에서는 공동체의 지속성, 생산배정의 민주성, 공동체 발전계획,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연대 등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 2010임원워크숍 및 도별 워크숍 결과 선언문 참조, 2010년 4월 생산자연합회 전국운영위원 및 도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2박3일동안 생산자연합회 비전워크숍, 7월 8월 도별 핵심일꾼 워크숍을 실시하여 생산자연합회 사명문 :지속가능한 지역순환농업 실천과 농촌공동체 건설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행복해지는 생명살림세상을 만든다, 4개 실행목표 : ①외부지원투입을 최소화하는 자급순환형 농업방식의 실현 ②자립·자치·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살림마을공동체 건설 ③물품과 삶을 나누는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 ④권역시군연합회의 내실있는 조직운영체계 완성, 30개 실행과제 정리

서 공동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생산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생산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방식 전환, 생활양식 전환, 지역예의 확산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생산자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생산방식의 전환에 있어서는 진정한 유기농업의 출발점인 자급 퇴비 현황, 생산계획 배정 원칙, 후계자 대책 등을 살펴보고, 생활양식 전환 측면에서는 공동체 월례회의 운영내용 및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유무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생산자 일반현황

한살림 가입생산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내외의 가입률을 보인다. 그러나 탈퇴율 역시 평균 7.3%에 달해 순증가는 가입 생산자의 50%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생산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생산자들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 생산자 연령대별 분포

- 한살림생산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0대(39.12%)를 중심으로 40~60대가 83.09%로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일반 농민 평균 분포율(62.26%)과 비교해서 한살림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분포율에서는 36%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0~50대(63.22%) 연령층의 생산자가 많다는 것은 적극적인 농업종사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생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다.

### (2) 생산자 조수입 및 부채 현황

- 한살림 생산자들의 조수입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총수입 평균(27,589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 지역이 축산, 과채, 과

수, 일일채소(비닐하우스), 겨울채소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품목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 연령분포가 60대 이상이 전국 상황에서는 65%인 반면, 한살림은 29%로 차이가 나는 것도 한살림의 조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될 것이다. 농가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낮음으로 시설채소에 집중하는 측면이나 보다 많은 경작면적 등의 영농규모가 많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생산자 조수입 현황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

(단위 : 천원)

구분	괴산 (195명)	청주청원 (60명)	부여 (101명)	충북북부 (50명)	제주 생드르 (46명)	제주동부 (23명)	평균	
평균	총수입	82,580	77,210	53,570	109,080	71,730	72,960	75,560
	농업수입	78,860	75,300	49,030	102,710	62,280	67,700	72,530
	축산제외	29,630	76,880	53,370	70,010	64,780	72,440	50,330
	한살림	60,940	55,800	27,710	70,280	34,910	51,640	63,290
	한살림 (축산제외)	10,000	55,800	27,510	41,080	34,910	51,120	27,110

|| 괴산 : 축산, 밭작물(잡곡, 채소), 청주청원 : 시설채소, 부여 : 딸기, 수박, 벼, 채소류, 충북북부 : 과수, 유통관, 채소, 제주 : 귤, 겨울채소가 주 작물

〈표 2〉 우리나라 평균 농업수입 (통계청, 2012년 농업수입)

구분	벼	과수	채소	밭	축산	평균
조수입	22,706	37,348	35,619	17,890	132,220	27,589

### (3) 생산자 부채 현황 및 원인 (2012년 5개 지역 생산자실태조사)

5개 지역 생산자 전체 평균 부채액은 66,010천원이다. 5개 지역이 시설채소와 과수/축산 등의 고투자 작목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전국평균 농가부채(27,889천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농가부채의 74.3%가 영농활동과 관련된 부채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구입이나 농기계구입, 시설설치에 차지하는 비용 등 고정자본비용이 57.2%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비 증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고정자본의 비용의 비율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장비의 공동이용이나 토지트러스트, 은퇴자 농지 위탁경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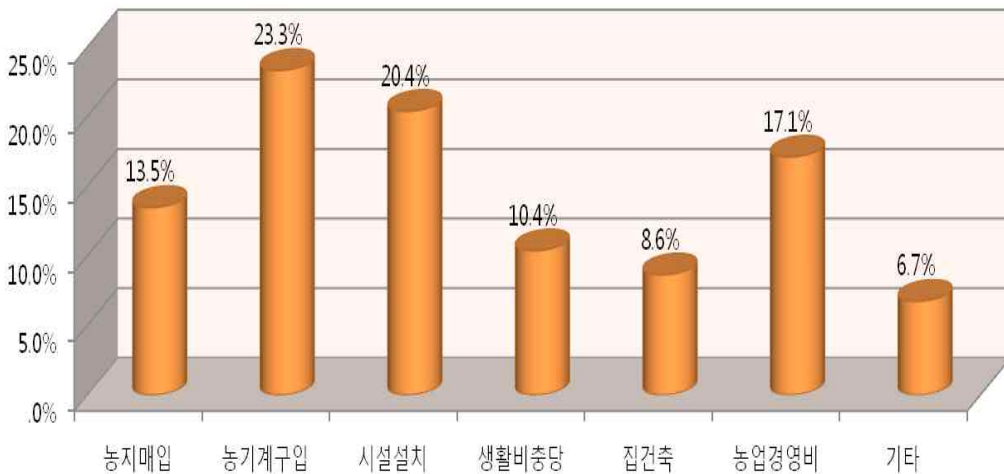
〈표 3〉 2012년 5개 지역 생산자실태조사 지역별 평균 부채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괴산	청주청원	부여	충북북부	제주 생드르	제주 동부
총 조수입 평균	85,600	77,210	53,570	109,080	127,440	72,960
부채평균	49,450	77,330	46,420	7,0220	130,413	106,260

|| 우리나라 평균 농가부채 : 27,889천원(통계청, 2012년 농업총수입 참조)

〈그림 1〉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 부채원인



## 2) 만족도

### (1) 만족도

- 한살림 생산자들의 만족도는 2007년도 조사나 2012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70% 정도로 나타난다. 2012년도 5개 지역 생산자실태조사에서 만족하는 사유에 대한 항목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관계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43.8%)을 하였다. 이는 관행농업이나 타 친환경생산자에 비해 한살림 생산자들은 안정적 가격과 판로(27%)에 따른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탈퇴 사유에 대한 조사항목을 보면 한살림농사 포기 내지 친환경농업 포기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애로사항

- 한살림생산자들의 농사를 지으며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최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노동력 부족이다. 이는 생산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응답이 약 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비의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이상기후에 따른 수확량의 불안정에도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에서 생산자들은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비절감과 작물전환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45.5%)을 보인다. 그동안 작물배치가 기존산지 중심의 배치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배치기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로컬푸드 확대 등 외부판로 확대(12.8%)와 가공물품개발(12.5%)을 포함하는 생산량 확대(33.7%)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소비확대를 통한 약정물량증가에 대한 응답(11.8%)도 있었다. 특히 산지가공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또는 전문가공산지와 밀접한 상호관계 형성 등을 통한 한살림 가공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직의 운영이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공사업의 배치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 (3) 지역조직(시/군연합회, 권역협의회) 운영

- 2012년 5개 지역 생산자실태조사에서 지역조직(시/군연합회, 권역협의회)의 활동의 1순위로 생산, 출하관리를 꼽았으며, 그 다음 많이 응답한 것은 회원의 화합 및 소득향상이었다. 그 외 기술교육, 조직활동 지원, 도농교류,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대답하였다.
- 그리고 생산자 교육 분야에서는 생산기술교육 및 농가경영교육을 압도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두 번째로 한살림 이념교육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 3) 공동체 지속성

### (1) 일반운영현황

- 한살림에서 공동체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표명하는 월례회의는 평균 연 10.5회, 참석률 74.5%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역시 전반적인 소통과 공동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무국의 보강으로 내용도 이전보다 충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단지 각종 교육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자들은 생산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2013년 공동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살림이념이나 조직운영교육(리더십 관련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 최근 3년간 신규생산자의 가입률은 14%, 탈퇴율 7.3%로 특히 시/군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3년 내 가입 207명 중 18.4%인 38명만이 영농후계자 및 귀농자로 자리 잡아 생산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젊은 그룹의 가입은 아직은 소수에 속한다. 보다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나 한살림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조직이나 공동체의 지속성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발전계획(서)이 문서로서

정리되어있다고 응답한 곳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때에 산발적으로 주제를 잡아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계획성 있는 논의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성원들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장 밀착 지도, 지원 기능 보강 등의 조직적 대책이 필요하다.

- 또 발전 계획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가공사업 등이 중심이며 이를 위한 논의 후에도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공동체의 발전 목표과 실행 계획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이 과정에 한살림의 조직적 결합과 지원방향 마련 등이 함께 만들어지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생산배정 민주성

- 전반적으로 생산계획 배정원칙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원칙을 문서화하여 집행되는 곳도 많았으며, 집행정도에 대하여도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기존생산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가입 생산자들을 적극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 기존 생산공동체에서 신규생산자를 늘려나가는 방식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강한 작목반이나 마을내지 공동체 단위의 영입이라든지 지자체내지 농협 등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역농업 실천 단위의 가입도 조직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후계자들이 30~4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은 공동체나 지역조직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의 귀농지원이나 은퇴 생산자들의 농지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살림 전체조직 차원에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도농교류

- 남부지역 공동체를 제외하고 도농교류는 5개 지역 연 평균 52회로 많이 이루어고 있는 편이다.
- 2012년 생산자개황조사 항목 중에 은퇴 시 농지 처리방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개인적 처리에 응답하는 비율(18%)보다 한살림에 위탁 기부나 위탁, 귀농자 임대 등의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32%에 이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생산자조직과 소비조직 등이 귀농지원기구를 함께 구성하여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2012년 5개지역 생산자실태조사 지역별 은퇴시 농지 처리방안

(단위 : %)

구 분	괴산	부여	청주	제주	충북북부	평균
매각	11	9	5	6	6	6
자식 상속	26	12	8	7	12	12
한살림영농단에 경영위탁	3	7	5	4	6	6
귀농자에게 임대	14	12	8	12	22	22
한살림에 기부	1	1	5	2	4	4
기타	9	6	23	21	14	14
무응답	36	53	45	48	36	3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4) 퇴비생산

2013년 공동체 현황조사에 따르면 우리 공동체들의 퇴비자급률은 평균 약 2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퇴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개인퇴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 필요량의 약 40%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퇴비의 자급을 위한 노력은 생산공동체 활동의 기본으로서 유기농업의 근간이 땅

을 살리는 것이고, 외부자재의 투입에 대한 의존성을 줄임으로써 유기농의 관행화 추세를 막아내는데 기여하며, 지역 내에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5) 지역사회 연대

지역사회와 소통은 농민단체나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과 부정기적인 물품 나눔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은 물론 지역농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 등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활동 영역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 5.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과제를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전환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두고 이의 실천과정을 살펴보면 공동체 활동의 정착부분에서는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자율적인 운영구조, 생산·출하관리, 지속적인 도시조합원과의 교류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의 내용과 활동방향으로서의 지역순환 농업 실천, 전체 한살림의 조직역량을 투입하여 만들어 온 아산, 괴산, 홍천 등의 지역농업 실천사례들은 한살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농업살림 활동의 실천과정에서도 초보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을 지닌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산, 홍천 등의 지역농업 실천모습, 솔피농장이나 산들바다공동체의 귀농자들과 현지농민들이 융화되어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의 모습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몇몇 지역의 사례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직 많은 공동체에서는 자립,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생산·출하에 머물러있으며, 또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농촌개발지원사업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준비단계를 토대로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막연하게 한살림의 조직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들도 존재하고 있다.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농업살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살림 생산조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자립의 기반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반 농촌현실에서도 농촌개발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행정중심의 일회성의 극복과 현장중심성의 회복이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그간의 한살림 생산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양한 층위의 모습들이 존재

---

21) 구자민 외,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2011년 196쪽 이하에 보면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으로, 담당공무원 중심의 과도한 행정주도, 공공성을 가진 지역활동가 및 현장전문가 부족, 민관 전문가 사이의 긴장된 균형관계 부족, 양적으로만 풍부해진 교육기회, 자주적 학습활동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안의 10년 실천사례를 통해 정리한 PAS방식, 즉 지역현장의 과제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프로그램(Program)화시켜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Actor: 지역주민, 행정공무원, 현장 밀착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상호협력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하고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산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살림 생산공동체는 통일된 한살림운동의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2000년대 중, 후반 양적성장기에 들어온 생산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조직적 교육 및 훈련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살림 생산공동체 안에서도 전체 생산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 및 조직운영 실천지침(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각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생산공동체의 자립, 자치, 자율적인 노력들이 한살림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지도, 지원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한살림 생산공동체가 지향해야할 지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습공동체이다.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될 한살림적 삶의 모습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 우주만물이 유기적 관계로 존재한다는 생명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생활과 생산 및 출하 활동, 마을(지역) 안에서의 활동 등을 반성하고 새로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또 권역단위의 협력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과정의 학습과 훈련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월례회의나 권역조직의 운영회의체계가 정보소통의 단위만이 아니라 생산공동체별 활동들에 대해 학습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실천과제를 확인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측면은 문화공동체이다. 농촌지역의 문화나 복지영역의 소외상황은 심각하다. 고령화,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빈곤한 의료혜택, 문화적 소외 등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은 마을마다 있는 문화나 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 활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은 아직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청년회나 대동계, 부녀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노력이나, 마을공동체의 상부상조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된 농촌마을에서 독거노인이나 조손(祖孫)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의료 및 복지 영역에 대한 실천 활동, 더 나아가 품물교습, 좋은 영화상영, 작은 도서관 만들기 등을 통해 부족한 농촌의 문화 활동들을 끝

어울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생활문화 향상으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생산공동체이다. 유기농업 실천에서 마을내지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살림 물품 소비량 증가에 대한 대비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중소농에 대한 공동경영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로컬푸드나 지역유통단위의 참여 및 연대활동들을 통해 건강한 지역경제공동체를 견인해 내는 활동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은 한살림 신규생산자를 확보하고 기존 생산자들의 이탈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작목 반들을 중심으로 한 물품 수급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생산자를 확대하는 예비단계의 활동으로서 역할도 할 것이다.

한살림 생산공동체의 지향점으로 ‘학습공동체’, ‘문화공동체’, ‘생산공동체’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한살림의 농업살림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각 공동체와 지역조직들이 운영되는 데 일관되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운영지침과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생산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살림 생산자들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생산자들을 한살림의 생산자로 변화시키는 교육은 신규가입교육 외에는 지역 활동에 맡겨진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물품의 정확한 생산 및 출하에 대한 요구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입한 생산자들의 한살림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하는 조직으로 머물게 하였다. 즉 생산과 출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자신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끔 전국적인 행사 참여하거나 소비자들과의 만남에서 듣게 되는 한살림 정신이나 생명운동 등에 대한 표현들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다가왔고, 특별한 생산자나 초창기 생산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도록 하였다. 현재 2천 명에 이르는 생산자들 내에는 초창기 생산자에서, 귀농자, 그동안의 한살림활동을 통해 학습 및 훈련이 된 각 단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생산자

그룹, 물품출하에 만족하는 생산자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각 층위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인식 전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살림 바로알기 기본교육, 생명의 세계관과 농업 등</li> <li>- 한국농업과 생명농업, FTA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 등</li> <li>-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리더십 교육(회의법 및 소통, 조직진단과 갈등관리, 공동체 및 각 단위의 비전수립,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li> <li>- 생산·출하교육, 농업교육(토양관리, 병충해 관리 등)</li> <li>- 실무단위 역량강화 교육 등</li> <li>-</li> </ul> </li> <li>■ 교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공동체 월례회의 등을 통한 학습(회의자료를 통한 소양교육, 주제별 교육팸플렛 배포, 정기간행물 발간, 주제별 소그룹 학습모임 운영 등)</li> <li>- 생산현장의 과제를 발굴하여 스스로 준비, 진행하는 포럼 운영</li> <li>- 한살림 농부학교 운영 등(단계별 종합적 교육과정 마련)</li> </ul> </li> </ul> |
|--|

## 2) 각종 운영지침

생산공동체의 기본활동은 생산활동과 조직활동이다. 따라서 각 생산공동체들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들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하여 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 생산관련 지침

우선 생산 활동에 있어서 한살림의 기본적인 물품관리체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공동체를 토대로 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한 농업노동의 결과물로써의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공동체의 자주적인 생산관리 과정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각 품목별(현실적으로

대분류 단위정도라도 정리) 생산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실천, 점검되는 과정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생산관련 지침

- 생산관리 지침 내용 : 생산계획 수립(배정원칙 공유, 필지점검, 약정), 생산관리(관련 교육, 종자/육묘관리, 시비관리, 생육관리, 공동체 안전성 관리), 작황통방식
- 출하관리 지침 내용 : 출하기준 교육(품목별 출하기준, 포장재 확인, 품온관리), 수확 후 관리(작황점검, 수확관리, 공동체 출하관리-공동 선별 및 포장 권장), 출하관리(출하 품질점검, 품온점검)
- 외부자원 최소화 유기농업 실천 지침 내용 : 퇴비자급률 향상 권장방안, 자가 및 공동 육묘 방안, 공동체 내 윤작 권장방안, 농가경영비 절감 방안
- 물품생산 확대 지침 내용 : 생산품목 확대방안(산지재배치 원칙, 늘어나는 품목 및 물량 배치 원칙, 지역 내 건강한 농민조직과의 연대 강화 방안)

(2) 조직운영지침

앞 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 생산공동체는 기본적인 월례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의내용도 한살림 소식이나 생산자연합회 전국소식에 대한 소통, 공동체 주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각 주제의 내용이 깊이 있게 검토되기보다는 형식적인 전달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시·군/권역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각 단위의 역할수행에 있어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시·군/권역조직으로 분화되는 과정과 그 후에도 지역조직의 위상이나 각 단위의 역할, 활동내용에 대한 지침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채 지내온 결과이다. 이제라도 지역조직 및 생산공동체의 운영지침이 정리되고 제시되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조직관련 지침

- 공동체운영 지침 내용 : 회원 가입·탈퇴·징계 관리, 공동체운영체계(회의체계, 생산 배분체계, 생산·출하관리), 소통체계(조직관련 내용, 생산관련 내용, 담당자 및 소통방식), 도농교류 운영체계(연중계획, 자원조사 정리 및 기본 프로그램 정리, 접수된 교류 공유 및 준비)

- 지역조직 운영 지침 내용 : 회원 가입·탈퇴·징계 관리, 생산자 교육 기획 및 실행, 지역운영체계(회의체계, 각종 위원회 및 모임 운영) 생산계획 취합·조정, 생산·출하 점검, 공동체 운영 지원, 도농교류 지원 및 인근 지역한살림 소통, 각종 서류 및 사진 보관
- 지역조직 발전 지원 방안 제시 : 각 조직 단계에 맞는 지원방안(발전계획 수립 기획 지원, 생산계획 배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공사업 배치, 지자체 지원사업 지원), 후계농 확보방안(생산자 자녀 승계 시 교육지원, 귀농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한살림 생태마을 추진 지원방안

### 3) 도농교류 강화 : 일상적 도농교류 내실화와 도시 자원의 생산조직 지원

한살림의 역사는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호혜적 관계로 만들고자 전력을 다해 노력해온 과정이다. ‘생산자들은 도시의 안전한 밥상의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은 농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 노력’ 함으로써 새로운 도농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27년을 달려왔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동이었다. 우리사회에 도농교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 생산자들은 도시소비자들을 단오라는 계기를 통해 농촌으로 초대하여 감사의 정을 나누었고, 도시소비자들은 가을걷이라는 잔치의 장을 열어 생산자들의 1년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였다.

한살림 초기 생산자들은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게 농사의 어려움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농사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농사를 토대로 마을(지역) 단위의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만들고, 땅을 비롯한 우주만물과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농(農)적 문화를 체험하게하고, 도시소비자들이 물품을 소비하는 것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나누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소비자의 빠른 증가(특히 중부권 이상 지역한살림 조합원)에 따라 중부권 생산공동체에 집중되는 소비자조합원의 교류활동은 생산지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정월대보름, 단오, 새내기방문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 도농교류의 본래 의미를 잘 살려낼 수 있는 조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sup>22)</sup>

도농교류 부분에서 현재의 생산공동체 상황(고령화, 인력부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도시지역 자원의 생산지 지원방안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살림 생산자들이 은퇴이후 농지처리 방안에서 약 32%정도가 한살림이나 귀농자에게 위탁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농지신탁 등을 활용한 귀농지원 기구의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토지신탁운동 등의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3)</sup> 도시지역의 인력자원 및 자산의 생산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4) 지속적인 생산공동체 지도 및 지원 기능 강화 필요

한살림 생산공동체가 그동안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 농업/농촌 운동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의 바탕에는 한살림이라는 조직과 정신이 있다.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생명의 세계관과 그 실천방향으로서의 생산과 생활양식의 전환이라는 한살림의 지향이 우리 생산공동체의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온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농촌사회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농촌운동의 새로운 이론(신 내생적 발전전략)과 활동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sup>24)</sup> 따라서 농촌 활동단위인 생산공동체가 지속적인 발전단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획력과 전문성 등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담보한 종합 컨설팅과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내외의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의 네트워크와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방안 마

22)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에 1월 ‘도농교류담당자워크숍’ 과 그 후 6회에 걸친 ‘한살림 도농교류 TF’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도농교류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과 도농교류에 필요한 생산지 관련자료와 실천지침 등을 마련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방문산지의 집중에 따른 대책(시설이나 비품, 재정 등의 지원, 신규방문산지 발굴/훈련) 마련과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 원로생산자를 활용한 간담회/강의 진행 등의 당면과제와 추후 과제로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류 전담인력 배치 및 귀농, 귀촌지원 제도의 마련을 들고 있다.

23) 제주 한울공동체는 한살림성남옹인과 송이지역식지원을 통한 국산사료축산을 전개하고 있다. 또 파주 천지보은공동체와 고양파주, 경기서남부 지역한살림이 통일농업과 관련하여 DMZ지역에 3000평 토지마련을 위해 출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자원의 생산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와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4) 구자인 외,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2011 p31~p39 참조

런 및 인력 양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살림조직 안에서도 생산공동체의 발전단계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기능을 발휘하고 전체조직에는 한살림 농촌살림운동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단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의 한살림 농촌살림활동이 생산공동체의 자생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한살림 전체조직 차원에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마련, 이를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 모니터링과 활용방안 연구, 그리고 각 생산공동체 발전단계 및 목표에 대한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생산계획 배정 및 연관 가공품 배치(필요시 기존 가공산지와 협력방안 마련), 필요인력 확보 및 양성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해 수행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살림 과제의 실천을 위해 한살림 정책 및 제도의 실천 상황 점검, 각 생산공동체들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원방안의 실천단계 점검 및 지원·지도, 각 단계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단위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조직, 소비조직, 연합 구매부문, 외부 전문가 등이 결합되어 생산공동체의 발전단계별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생산공동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농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목 및 약정량 배치 협의, 지역농업 실천 로드맵 수립 지원, 가공부문 협력방안 마련, 로드맵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를 위한 실무 단위 운영도 필요하다. 또 한국농업 및 농민의 전체적 상황과 과제를 다루는 정책 조사 및 연구도 필요하다. 한살림 내지는 생산자연합회가 한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 연대활동에 필요한 정책 연구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살림 생산공동체들이 많은 역할을 하였듯이, 기후변화와 FTA시대에 한국의 농업, 농촌이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산공동체의 현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생산공동체가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헌신적인 생산자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0년대 중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들어온 생산자들과 20여년을 어려운 상황 안에

서 초심을 지키려 노력해온 생산자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새로운 희망과 실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의 의미를 토대로 한 재교육, 새로운 실천을 위한 조직적 지원과 지도, 지역순환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 마련과 실천을 위한 컨설팅 등 생산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생산공동체에 기반한 농업살림운동으로 농촌과 도시가 호혜적인 관계로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한살림의 경험들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초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더욱 활발히 펼쳐져야 할 것이다.

[부록 1] 2013년 공동체현황조사 결과

▶연합회 일반 현황

구분	회원수 (예비)	3년간 가입		3년간 탈퇴	순 증가	주요품목	주요탈퇴사유
		지역농민	67				
아산	355	지역농민	67	72	14	쌀,채소,배,유정 란,두부/콩나물 가공	고령 및 사망
		후계	13				친환경포기 (경제적사유)
		귀농	4				필지 갈등
흥천	205 (50)	지역농민	70	33	41	쌀,채소,김치,가 루류가공	사망,병환
		후계	1				친환경 포기
		귀농	3				한살림 포기
산청	196 (12)	지역농민	12	13	3	쌀	사망, 병환
		후계	3				한살림 포기
		귀농	1				
청주	67 (13)	지역농민	20	10	23	채소	소득불만
		후계	1				회원갈등
		귀농	12				친환경포기 (경제적 사유)

▶연합회: 공동체(회의/교육)

구분	소속 공동체 운영											
	월례회의		주요 내용					각종 교육				
	평균 횟수	평균 참석 률	소식 소통	내부 안전	생산 배정	생산 관리	교육	기 타	한살 림교 육	자체 기술 교육	외부 기술 교육	기타 교육
아산	10회	78%	0	0		0	0		1회	15회	1회	인증교육
흥천	10회	60%	0	0	0	0		0	3회	4회	2회	식생활교 육,자녀희 망교육등
산청	11회	80%	0	0	0	0	0		3회	3회	2회	
청주	11회	80%	0	0	0	0	0		2회	1회		

▶연합회: 공동체 지속성

구분	생산계획배정원칙				후계농 지원				퇴비 조달 현황						
	문서	관례	신규우선	집행정도	문서정리	관례	사안별회의	고려안함	자체조달			외부구입	지자체지원		
									비율	종류	공동퇴비장			개인퇴비장 수량	비율
아산		0		보통			0		15%	우분, 계분, 볏 집, 녹비등		6	50%	75%	45%
흥천		0		보통			0		30%	우분, 볏집, 녹 비식물등		115	40%	70%	50%
산청		0		우수			0		35%	우분, 녹비식물		60	45%	65%	50%
청주		0		보통			0		15%	우분, 버섯배지		22	30%	85%	50%

▶연합회: 가공현황

구분	가공현황									
	생산현황			출자형태			원부재료 수급			
	품목	공급액	가동률	생산자출자	외부출자	외부내용	자체	외부계친환경	친환경수급	일반수급
아산	두부 두유		90%	100%			20%		10%	70%
	콩나물		60%	71%	29%	한살림소비자, 지역관심자, 실무자개인	70%			30%
	축산가공		월40두	84%	16%	한살림소비자, 실무자	100%			
흥천	김치, 반찬		70%	56%	44%	한살림 생산자외 외내들 생산자	89%	5%	5%	1%
	가루류									
산청										
청주	절임추		5%	100%			100%			
	도라지		25%	100%			60%	40%		

▶연합회 -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동

구분	도농교류									지역사회활동					
	총회회수	방문	일손나눔	생명의학교	1박2일	각종점검	기타	시설	담당	단체연대	복지회		학교급식		기타
											복합	지속	회의	공급	
아산	80	30	5	3		2	40	쉼터식당	사무국	농민단체, 시민단체	0	0	0	2.7억원	로컬푸드,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등
홍천	42	15	11	2	8	6		쉼터	대표등	농민단체, 시민단체		0	0	15억원	골프장 반대, 식생활네트
산청	16	6	2	1	1	4	2		사무국	농민단체		0			
청주	70	44	24			2		쉼터	대표		0				

▶연합회 - 공동체별 발전전망

구분	발전전망											
	발전계획 존재여부				계획내용							실행
	문서정리	회의시 논의	필요시 논의	임원논의	지원사업	가공사업	공동체지속	체성	생산관련	지역회동	기타	
아산	0					0	0	0	0	0	조직운영 전반	단계별, 사안별참조
홍천		0	0		0	0	0	0	0	0	공동체별가공사업	사안별 참조
산청		0			0		0					사안별 참조
청주			0		0	0						

▶ 권역공동체 - 일반 현황

구분	회원수 (예비)	최근 3년간 가입		3년 간탈 퇴	순 증 가	주요품목	주요 탈퇴사유
여주 금당리공동체	23	지역농민		3	-3	벼, 고구마 등	한살림포기 급식출하
		후계					
		귀농					
원주생산자 공동체	21	7	지역농민 4		7	복숭아, 옥수수 등	
			후계 1				
			귀농 2				
평창 선애골공동체	6(1)	6	지역농민 6			더덕 등	
			후계				
			귀농				
횡성 공근공동체	25(1)	4	지역농민	1	3	감자, 벼 등	부인 건강
			후계 1				
			귀농 3				
횡성 삼원수약초마 을공동체	12	16	지역농민 15	4		벼, 블루베리 등	인접 인삼밭 고령
			후계				
			귀농 1				
거창 산하늘공동체	13(2)	2	지역농민 2			사과, 포도 등	
			후계				
			귀농				
고성 공릉나라 공동체	19(2)	12	지역농민 11	3	9	참다래 등	한살림포기 사망 귀농포기
			후계				
			귀농 1				
문경 희양산공동체	7	2	지역농민			벼, 잡곡 등	
			후계				
			귀농 2				
상주 갯머리공동체	6(1)		지역농민	2		포도, 벼 등	자부담 부담
			후계				
			귀농				
상주 햇살아래 공동체	14	2	지역농민 1	3		포도, 사과	인증사고 건강약화
			후계				
			귀농 1				
성주 가야산공동체	7		지역농민				
			후계				
			귀농				
담양 대숲공동체	25	13	지역농민 9		13	단감 등	
			후계				
			귀농 4				
영광	9(4)	4	지역농민 2	2	2		친환경포기

이음공동체			후계					인증사고
			귀농	2				
보은 백록동공동체	15(1)	1	지역농민				고추, 감자 등	
			후계					
			귀농	1				
영동생산자 모임	25(5)	4	지역농민	3	3	1	포도, 호두	타 생협출하
			후계	1				친환경포기
			귀농					전업
옥천 배바우공동체	17(5)	9	지역농민	7	3	6		한살림포기
			후계					
			귀농	2				
옥천생산자 모임	13(3)	4	지역농민		1	3		전업
			후계					
			귀농	4				
단양 별방공동체	13		지역농민				마늘, 양파	
			후계					
			귀농					
음성생산자 모임	12(1)	2	지역농민	2	1	1	채소 등	한살림포기
			후계					
			귀농					
단양 삼태산공동체	7(3)		지역농민				채소 등	
			후계					
			귀농					
충주생산자 모임	32(3)	8	지역농민	8	2	6	사과, 수박, 채소 등	한살림포기
			후계					
			귀농					
부안 산들바다 공동체	18	3	지역농민	2			겨울채소, 양파 등	
			후계					
			귀농	1				
정읍 한밭음공동체	17(2)	10	지역농민	3	2	8		농업포기
			후계					한살림포기
			귀농	7				
제주 한울공동체	7	2	지역농민	1				
			후계					
			귀농	1				
제주 혼디드렁 공동체	5(2)		지역농민				당근, 깻잎 등	
			후계					
			귀농					
	368	111			30			

▶ 권역공동체 - 공동체(회의/교육)

구분	소속 공동체 운영											
	월례회의		월례회의 내용						각종 교육			
	평균 횟수	평균 참석률	소 소 통	내 부 안 건	생 산 배 정	생 산 관 리	교 육	기 타	한 살 교 육	자 체 술 교 육	외 부 교 육	기 타 교 육
여주 금당리	12	70%	0	0	0	0	0		2	2		
원주 공동체	10	80%	0	0	0	0	0			2	2	
평창 선애골	12	80%	0	0	0	0	0		4			
공근 공동체	12	80%	0	0	0	0	0	0	4	1	1	
삼원수	12	90%	0	0	0	0			1	1		
거창 산하늘	11	95%	0	0	0	0	0		2	2		
공룡나라	12	95%	0	0	0	0	0	0	4	2	2	
희양산	9	90%	0	0	0	0		0		2	4	
갯머리	12	90%										
햇살아래	12	98%	0	0	0	0		1	1	1	2	
가야산	12	100%	0	0	0	0	0		2	4	4	12
대숲	12	70%	0	0	0	0	0		2	2	2	
이음	12	80%	0	0	0	0	0	0	1		2	1
백록동	12	80%	0	0	0	0	0	0				3
영동	12	85%	0	0	0	0	0	0	1	1	2	2
배바우	12	80%	0	0	0	0	0	0			2	
옥천	8	95%	0	0	0	0	0	0	2	2	2	3
단양 별방	6	90%	0	0	0	0						1
음성	6	90%	0	0			0				1	1
단양 삼태산	12	100%	0	0	0	0						1
충주	11	95%	0	0	0	0	0	0	1	1	1	1
산들바다	12	99%	0	0	0	0	0		1	2	1	
한밤음	12	70%	0	0	0	0			1			
제주 한울	12	50%		0	0	0	0		2			
혼디드령	6	100%	0	0	0	0	1		2	2	2	
평균	10.8	86.8%							1.94	1.80	2.00	2.78



										녹비					
이음	0		보통		0		30%			벗집 · 녹비	1	30%	70%	80%	
백록동		0	우수		0		70%				50%		50%	50%	
영동		0	우수		0		70%			우분 · 계분 · 벗집 · 녹비				50%	
배바우		0	우수		0		70%			우분 · 계분 · 벗집 · 녹비	10	70%	30%	50%	
옥천		0			0		70%			우분 · 계분 · 벗집 · 녹비	7	50%	30%	50%	
단양 별방		0	우수				50%			우분	2	100%	50%		
음성		0	우수		0		10%			벗집	4	50%	90%		
단양 삼태산		0	우수				50%			우분			50%		
충주		0	우수		0		30%			우분 · 계분 · 녹비		20%	70%	90%	
산들바다	0		우수				10%			우분 · 벗집	4	15%	90%	25%	
한밭음		0	우수				40%			계분			60%	25%	
제주 한울		0	기존 중심		0		40%			우분 · 계분	4	40%	60%		
훈디드령	0		고품 정목		0		20%			우분 · 계분 · 녹비	1	40%	80%		
							47.3					49.6	62.9		

▶ 권역공동체 - 공동체 가공현황

구분	가공현황									
	생산현황			출자형태			원부재료 수급			
	품목	공급액	가동률	생산자출자	외부출자	외부내용	자체	외부계약 친환경	친환경 수급	일반 수급
여주 금당리	부음평 콩		80%				60%	40%		
원주 공동체										
평창 선애골										
공근 공동체	튀밥류 등			7			100%			
삼원수										
산하늘										
공룡 나라										
희양산										
갯머리										
햇살 아래	감말랭 이		15%	13			80%		20%	
가야산										
대숲										
이음										
백록동										
영동	호두, 곶감		30%	23					100%	
배바우										
옥천										
단양 별방										
음성	고추장		50%	1				100%		
단양 삼태산										
충주										
산들 바다										
한밭음										
제주 한울	쌀보리, 무말랭 이		40%	3			100%			
훈디 렁										

▶ 권역공동체 -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동

구분	도농교류									지역사회활동			
	총 회수	방문	일손 나눔	생명 학교	1박 2일	각종 점검	기 타	시설	담당	단체 연대	복지활동		기타
											물품 나눔	지속 후원	
여주 금당리	26	20	4	2				쉼터/ 식당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원주 공동체	4	1	3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시민 단체			복 지 연 대 참 여
평창 선애골	6		2			4			대표/ 총무	농민 단체			
공근 공동체	22	3	2	4		3	10	쉼터/ 식당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삼원수	6	3	1						대표/ 총무				
산하늘	4	2	2						대표/ 총무				
공룡 나라	5	1							대표/ 총무				
희양산	1						1		대표/ 총무				
갯머리	3		1		1		1	쉼터/ 식당	대표/ 총무				
햇살 아래	10	3	2	1		4		쉼터/ 식당	대표/ 총무				
가야산	4						4			농민 단체			
대숲	10	7	1			2		쉼터/ 식당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이음	6	3					3		대표/ 총무	농민 단체			
백록동	22	5	2	8	5	2		쉼터/ 식당	대표/ 총무				
영동	17	10	5			2		쉼터/ 식당	대표/ 총무				
배바우	6	2	2			2		쉼터/ 식당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시민 단체		0	골 장 대 민 연 대 프 반 시 연 대

옥천	12	5	5			2		식당	대표/ 총무				
단양 별방	2	2							대표/ 총무				
음성	5	5							대표/ 총무	농민 단체, 시민 단체			
단양 삼태산	1	1						쉼터	대표/ 총무				
충주	20	15	3			2			대표/ 총무	시민 단체		0	
산들 바다	18	7	3	2	3		3	쉼터/ 식당	전담 생산자	시민 단체	0		
한밤음	4	3		1					전담 생산자	농민 단체	0		
제주 한울	6	3			2	1			대표/ 총무		0		
훈디 드령	1					1			대표/ 총무		0		
	8.84												

▶ 권역공동체 - 공동체 발전계획

구분	발전전망											
	발전계획 존재여부				계획내용							실행
	문서 정리	회의 시 논의	필요 시 논의	임원 논의	지원 사업	가공 사업	공동체 지속성	생산 관련	지역 사회 활동	기 타		
여주 금당리			0			0	0	0			필요시	
원주 공동체			0					0			필요시	
평창 선애골			0		0	0	0	0			수립에 의미	
공근 공동체		0			0	0	0	0	0		필요시	
삼원수		0			0		0	0			단계별	
산하늘			0				0	0				
공룡나라		0					0	0	0			
희양산			0				0	0				
갯머리			0									
햇살 아래	0				0	0	0	0	0	0	필요시	
가야산	0				0		0	0	0	0		
대숲			0				0		0		필요시	
이음	0				0	0	0	0			필요시	
백록동			0		0	0	0	0	0		필요시	
영동	0				0	0	0	0	0	0	단계별 실천	
배바우	0				0	0	0	0	0	0	단계별 실천	
옥천	0				0	0	0	0	0	0	단계별 실천	
단양별방			0				0	0			필요시	
음성			0		0		0				필요시	
단양삼태산			0			0	0	0			필요시	
충주			0		0	0	0	0	0	0	단계별 실천	
산들바다		0			0	0	0	0	0		필요시	
한밤음		0			0	0	0	0	0		필요시	
제주 한울			0		0	0		0	0		필요시	
훈디드령			0		0			0	0		필요시	

## [부록 2] 2010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비전수립워크숍 결과

–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사명 및 향후 5년간의 실행목표 –

■ **사명: 지속가능한 지역순환농업 실천과 농촌공동체 건설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행복해지는 생명살림세상을 만든다**

### ■ 실행목표 및 실행과제

#### 1. 외부자원투입을 최소화하는 자급순환형 농업방식의 실현

- 1) 퇴비자급률 향상 (녹비작물, 부산물/부엽토 활용을 통해 5년내 50% 달성)
- 2) 축산과 연계된 퇴비 생산(국산사료한우, 유기축산, 공동축산, 지역내 축산농가 연계)
- 3) 공동퇴비장 건설 및 활용
- 4) 사료작물 이모작
- 5) 무경운/무투입 농산물 차별화(가격차등, 우선배정 등)
- 6) 농가경영비 절감방안 모색(종자 및 자재 공동구매, 기술교류 및 교육, 농기계 공동사용)
- 7) 윤작체계 확립(생산계획 수립시 배려)
- 8) 유기농업기술 연구 및 개발(토종종자재배, 자연채취자재 등)

#### 2. 자립·자치·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살림마을공동체 건설

- 1) 월례회의 정례화(부부 참여)
- 2) 공동체 사업개발(물류센터, 가공시설설치, 공동텃밭, 두레/품앗이 복원 등 공동작업, 마을 주변 환경정비 등)
- 3) 농촌지역 복지활동(노인, 육아, 다문화가정 돌보미/보건활동 등)
- 4) 전통문화복원(당산제, 두레, 품앗이, 울력 등)
- 5) 회원간 친목도모 프로그램 운영(부부한마음클리닉, 사랑방모임, 민주적 회의방식 및 소통 훈련, 텃밭농산물 나누기)
- 6) 후계자 양성계획 마련(귀촌/귀농 프로그램 운영, 젊은세대 영입장치 마련)

### 3. 물품과 삶을 나누는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

- 1) 생산자/소비자 1:1 교류 확대(시골친척만들기, 교차방문)
- 2)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공동텃밭/토종종자포 운영
- 3) 소모임 등 주제가 있는 교류(농업의 전문성을 담아내는 교육 실시, 도시텃밭/베란다농사 지원, 아토피치료 등)
- 4) 소비자쉼터 건립(가족단위 방문시설 건립 포함)
- 5) 지역한살림과 지역사회후원농업(CSA), 가까운먹을거리운동 적극 추진
- 6) 지속적인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포인트제도 연계 등)
- 7) 잉여생산물이나 공동텃밭생산물 등을 활용한 도시지역 불우이웃돕기
- 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을 활용한 소비자교류 시도

### 4. 권역시군연합회의 내실 있는 조직운영체계 완성

- 1) 정기적인 생산자교육 진행(한살림 바로알기, 선진공동체 교류, 리더십교육, 기술교육 등)
- 2) 조직내 각 단위별 역할분담을 통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지원체계 마련
- 3) 지역내 한살림농가 확대(권역/시군연합회 건설을 목표로)
- 4) 수평적 조직운영체계 완성
- 5) 공동물류 마련(지역/권역별 거점물류체계 운영)
- 6) 핵심생산자들의 지도력 고양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 7) 적절한 작목배치, 평등한 생산계획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체계 마련
- 8) 공동체 운영지침 마련

## 참고자료

- 모심과살림연구소 엮음, 생명운동자료모음, 2011.
- 한살림, [한살림20년] 햇살과 바람 정직한 땀의 기록, 2006.
- 원주사람들,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1980.
- 생활공동체, 그 평가와 전망 좌담회, 공동체문화3집, 1986.
-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좌담회, 한살림무크지, 1990.
- 구자인 외, 마을만들기 -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2011년.
- 김영원, 농업·농촌 위기의 대안으로서 유기농업·공동체운동, 1991년 한살림생산자연수회 자료집.
- 이상국, 한살림생산자 대상 강의, 2000년대 초.
- 1989년 개정 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칙, 1991년 한살림생산자연수회 자료집.
- 1999년 제2차 한살림생산자위원회 회의자료.
- 2003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창립자료집.
- 2000년 한살림 물류사업부 활동평가서.
- 2004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
- 2005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 2006년 한살림생산자모임,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
- 2008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 2009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공동체대표자연수회 자료집.
- 2012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 2013년 모심과살림연구소 농업살림연구모임 제3차 회의자료.

연구보고서

**한살림 생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집필·정리 서정호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날 2013년 12월 31일



## 모심과 살길 연구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 동훈빌딩 5층  
02-6931-3604 sal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중이로 만든 책